



우리나라 원격대학교육의 미래와 발전 과제

최 무 영 | 한성디지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원격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컴퓨터와 통신을 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성이 높아진 다양한 뉴미디어를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원격교육은 면대면(face-to-face)교육이 중심이 된 전통적인 교실교육 환경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조건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학습(flex-learning, Luke, 1997) 환경으로서 다양한 정보기술을 학습 환경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임연옥, 2002, pp. 245~266). 원격교육은 우편제도를 이용한 통신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라디오와 TV를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를 통해 음성이나 화상으로 발전되었고, 근래에 와서 컴퓨터를 포함한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상호작용 통신으로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원격교육기관의 출현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원격교육기관의 법적 기반은 평생교육법 제22조¹⁾에서 출발하여 최근 고등교육법으로 개편되었다. 1999년 8월 31일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2000년 3월 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는 전혀 다른 인터넷 기반의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원격대학이 2001년 3월에 처음 개교하여 현재 17개 원격대학²⁾이 운영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원격대학의 현재를 살펴보고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원격대학 제도개선 계획’의 실천에 따른 변화를 통한 미래 예측과 함께 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 원격대학교육의 현재

우리나라 원격대학교육은 방송통신대학이 주로 담당해 오다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공간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2) 2006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한 원격대학은 총 17개 대학으로 그 중 15개 대학은 학사학위 인정과정의 4년제 대학이고, 나머지 2개 대학은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인가.

고취시킬 수 있는 웹 기반 교육패러다임으로 발전한 형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 교육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격대학의 기술 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가 원격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규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아니면 정규교육 중 대학과정이든 전문대학과정 이든 수요자가 원하면 원격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의 교육 기관과의 영역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여 개념 정립과 법적 근거 등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김상겸 외, 2006, p. 265). 2003년도 지표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격대학 등록생의 주된 연령층은 20대~30대이며, 정규 학령자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17.8%인 반면 학령기를 넘긴 연령대가 82.2%를 차지하여 원격대학이 성인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03). 학력도 검정고시를 포함한 고졸학력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원격대학의 도입으로 과거 고등교육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대학 도입기에 실시한 또 다른 조사도 이러한 현상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강자의 연령 대는 25세부터 40세까지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되

었고, 성 비율은 남녀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풀타임 학생이 6%대인 것에 반해 직장인이 71%로 대체를 이루고 있으며 주부도 13%나 되었다(오은진, 2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원격대학교육은 교육의 형평성 유지에 상당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기 어려웠던 계층인 직장인, 학령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원격대학교육은 2001년 제도도입 후 2005년 현재 총 17개 대학에 55,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 정원이 23,550명인데 비해 실질적인 신입생 수는 15,0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신입생의 부족으로 학교 간 과다경쟁 및 과다한 시간제 등록생 운영으로 원격대학교육 본래의 특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원격대학이 일반 Off-Line 대학과 다른 차별적 불이익을 가졌다는 점이다. 즉 낮은 사회적 위상과 쉽게 학위를 취득하는 기관으로 인식 되었고, 이것은 교원의 신분 보장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러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방송통신대학과 동일한 목적 및 학위 수여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의 변경을 통해 원격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원격대학 제도 개선 추진계획'³⁾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3)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7월 12일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 변경, 원격대학 설치·운영 기준 강화, 원격대학 운영 역량 강화, 원격대학 질 관리 체제 구축 등 원격대학 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II. 원격대학교육의 미래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에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나아가 원격대학의 교육 여건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원격대학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다 내실 있게 원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제도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원격대학 설치 근거 법률을 변경하였다. 즉 평생교육법 제2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규정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종류에 '사이버대학'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원 설립 및 학기제 변경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3조 '원격대학' 설립이 가능한 법인을 학교 법인으로 한정⁴⁾하여 일반 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원격대학 설치·운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신규로 설립될 원격대학은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화하였다.

셋째, 학사 운영·관리의 내실화와 대학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제3의 인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대학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격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 결과 우수대학 재정 지원 및 콘텐츠 개발·지원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원격대학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어떠한 형태이든 원격

대학교육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동안 내재된 원격대학의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 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분명한 변화는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되는 순간 원격대학의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원격대학도 일반 대학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아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지원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가슴 한 구석에 아쉬움과 의구심을 품으면서 향학열을 불태운 13,000여 명의 졸업생과 55,000여 명의 재학생들에게 일반 대학과 다름없는 정규대학생이란 자긍심을 불어 넣어 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학업 적령기의 고교 졸업생은 물론 현재 원격대학교육의 주축인 30~40대 직장인의 관심이 크게 신장될 것이고 참여도가 늘어나 정원에 못 미치는 신입생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는 학생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보다 튼실한 학교 운영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학교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원의 신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소속감이 더욱 강화될 것임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원격대학교육의 여건 강화 및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숫자가 대단히 많고 유형도 다양한 미국에서 온라인 교육은 이미 고등교육의 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의 확산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강좌 내용의 다양성

4) 그동안 원격대학은 지방자치단체, 학교 법인, 비영리 재단 법인 등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법인으로 한정하고 기인가 재단 법인은 3년 이내에 학교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수많은 고등교육 기관 중 석·박사학위/연구중심대학의 온라인 교육 반영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자격증이나 전문 과정 등 다양한 과정에서 고르게 제공되고 있다.⁵⁾ 따라서 우리나라 원격대학교육의 미래도 고등교육기관의 한 축으로 분명히 정착될 것이다. 나아가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장기적인 대학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발전 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격대학교육의 현실과 법 제도 개선을 통한 미래를 조명해 보았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게 될 원격대학교육의 발전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및 학교 차원의 과감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격대학의 등록금은 일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개인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요구된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이 비용을 선뜻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학교의 장학금 수혜 등 여러 혜택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 지원의 경우 ID와 Password가 확인되면 시스템 구입·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일반 대학에 진학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상호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원격대학교육의 장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

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전문 교수 요원을 양성·확보하여 양질의 콘텐츠가 개발되어 수업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사실 일반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가 훨씬 준비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 오프라인 강의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교육 환경을 조절할 수 있지만, 온라인 강의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원격대학 학사 운영 지침에 학기별 온라인 강좌를 15주차로 규정하고 있고 강의를 업로드 하는 기간도 주간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의 자료도 해당 주차별로 정확한 양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등 시간적·양적 제한이 분명하다. 또한 대부분의 콘텐츠가 동영상 중심이기 때문에 교수의 자질에 따라 교수·학습 효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학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깊어도 동영상 제작 과정에 적응을 못하면 콘텐츠의 생명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발음이나 목소리에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극복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학생들은 해당 강의에 대해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교수도구 제작 및 자료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전문가들이 교수 요원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수업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셋째, 원격대학을 대학원 중심의 이론 전문 교육기관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격대학 수강생의 주축은 직장인이다. 그러나 그들이 각고의

5) 미국의 온라인 교육기관 연합체인 The Sloan Consortium이 미국 고등교육의 온라인 교육 운영에 대해 조사한 2006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져가고 있고, 학생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김규환, 2006)하였다.

노력으로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오프라인 대학원에 진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온라인 교육과 달리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이 바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원격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다면 자연스럽게 졸업생들이 계속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일반 대학에서 온라인 대학원 과정을 일부 강좌에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원 교육은 전문 이론 중심 교육이기에 더욱 온라인 교육의 특성에 부합한다. 원격대학의 특성을 십분 살린 이론 전문 교육기관으로 적극 육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을 이수한 초·중등 교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적 인력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대학원 입학 조건으로 화상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 등 강력한 학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오프라인 대학원 강의보다 더 충실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곧 원격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의 세계로 진행될 21세기에서 원격대학교육은 고등교육기관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돌파구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격대학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3). 2003 교육정보화 백서.
- 교육인적자원부(2006).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 2006. 7.
- 김상겸 외(2006). 원격대학의 현황과 법적과제. *헌법학연구* 12(1).
- 김규환(2006). 미국고등교육기관의 온라인교육 운영. *대학교육*, 141.
- 오은진(2001). 원격대학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직업능력개발연구*, 4(2).
- 임연옥(2002). 원격대학교육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한 제언. *교육법학연구*, 14(2).

최무영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스포츠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생활체육연구실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성디지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